

순창 기능성 바이오식품 '인기'

군, 프리미엄 커피 '순한발효가비' 2천만원이상 수익 창출 등 판매 확대

순창군이 유용미생물을 적용해 만든 기능성 바이오식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판매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고초균 등 국내 고유 토착미생물과 진통장류 발효기술을 융합해 만든 프리미엄 커피 '순한발효가비'는 원두와 드립백으로 출시해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고부가가치 커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2년간의 연구를 진행해온 결과 맛과 향미가 우수해 최근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판매가 확대 되고 있다.

고창군, "공명선거 추진에 집중 할 것"

영상회의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등 해결방안 모색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16일 이길수 부군수 주재로 14개 읍·면장 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짧은 기간 내에 치러지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집중할 것과 불법 선불예매,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순창장류(주)에서 출시한 영유아 맞춤형 프리미엄급 순창한식된장도 출시 2개월 만에 3천만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영유아 맞춤형 순창한식된장은 효소 활성, 항균활성 등 우수한 특성이 밝혀진 군주를 적용하고 100% 국산 햅콩을 이용해 만든 저염식 제품이다.

영양적 관능적으로 최적화된 제품으로 안전한 건강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는 젊은 층 주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산어물네이처(주)에서는 발효미생물 산업 진흥원의 미생물 기술을 활용 공 발효과정에서 효소활성이 우수하고 항 아토피 활성이 우수하게 평가된 고초균과 안정성이 확인된 유산균을 이용한 장 건강 제품인 GN 바이오스랩을 최근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군과 전라북도는 한국형 유용균



주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과 장 건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 3가지 제품은 시장반응이 좋아 판매 확대를 통한 산업화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특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사업의 발효 미생물 산업화의 핵심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적으로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상황을 조기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집행 및 당면 현안사항 해결에도 적극 동참기로 했다.

이길수 부군수는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켜야 하고 그 중심에 공직자들이 있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늘 주민 가까이에서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뤄가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인문학 정신 고양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본격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에 나서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반기에만 32개 과정에 419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에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계절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좌인 독서아카데미, 길위의 인문학, 인문고전 읽기 ▲'문화가 있는 날' 책 세상을 열다 ▲생애주기별 평생학

습 지원(북스타트, 책 읽어주는 실버 문화 봉사단, 전시·공연·취미·여가) 그리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수화교육·영화상영, 다문화프로그램 등이다.

이중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북스타트데이 운영, 매주화요일에 진행되는 도서관 속 동화여행, 매주토요일에 진행되는

로봇과학 체험 그리고 관내 어린이시설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빛그림책 공연 등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과 성인 프로그램은 인문독서 아카데미,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인문고전 읽기 등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각 5~6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이며, 주간에는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주민의 실정을 감안하여 야간강좌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은 전화 650-5678 또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lib.sunchang.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촌여성 대상 문화체험교실 운영

임실군, 냇킨·퀼트·도자기공예 등 23일까지

"바쁜 농사철도 아니고 여유있을 때 취미생활 삼아 공예를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지금 배워놓으면 두고두고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실군이 문화활동 기회가 적은 농촌여성들을 위해 운영 중인 여성문화 체험교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 달 1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임실군청 농민교육장과 관촌 도화지 공예문화원에서 여성문화 체험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번 여성문화 체험교실은 여성들이 선호하고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냇킨공예와 퀼트공예, 도자기공예 등 3과목이다. 공예를 배워보고자 하는 지역 여성들의 열기에 힘입어 참여자만

110여명에 달한다. 군은 앞으로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문화 체험교실 외에도 노래교실과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여성취업설계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은 "농한기에 취미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성들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제4회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정기회의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에 걸쳐 고창밸파크시티 홀콘아트홀에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전문가·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는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지자체와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함께 모여 지질공원 전문가와 함께 최신 정보교류와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창군에서 개최됐다.

1일차에는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8개(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강원평화(DMZ), 청송, 무등산권, 한탄·임진강, 강원고생대) 지자체의 운영 모범 사례 발표와 함께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준비 중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제도 및 인증절차·방법 등 전문교육과 2017년 지질공원 주요업무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열린 논의가 이뤄졌다.

이튿날 2일차에는 고창군 지질명소인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고창갯벌, 명사십리와 구시포 등 지질명소를 현장 답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남원 감성여행 코스 개발

남원시는 500만 관광객 뛰어넘기 실현을 위한 시책으로 남원시의 주요 지점을 둘러보며 문화탐방과 목상을 통한 가벼운 트래킹으로 감성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발로 돌아보는 남원 감성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감성여행 코스는 광한루원 반경 2km 구간 내 시내권 위주 12개 지점을 연계하는 총 연장 5km 정도의 투어 코스로 4시간의 체류시간 연장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증가 추세의 새로운 관광 유형인 FIT(자유 개별여행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루트로 기존 단체여행 유치 전략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남원시의 500만 관광객 뛰어넘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옷거름 적기사용 강조

임실군은 지난해 보다 생육이 다소 부진한 마늘·양파의 2차 옷거름 적기사용을 강조하며 오는 31일까지 농가 현장 지도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옷거름 시기는 품종과 생육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월 중순부터 늦어도 3월말까지 시비해야 한다.

마늘은 10a(300평)당 요소 17kg, 염화加里 13kg을 시비하고 양파는 요소 17kg, 염화加里 6kg을 권장하고 있다.

추비가 늦어지면 발마는 발생확률이 높고 저장성과 품질이 떨어져 반드시 3월 말까지 옷거름을 주는 것이 고품질 마늘과 양파 생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분 결핍을 막기 위해 뿌리와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조 작업을 실시하고 서릿발 예방을 위해 훈령기(복토)와 파손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배수구 정비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남원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1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에 나섰다.

그동안 승강장이 없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있었던 주생면 상동마을의 11개 마을에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수지면 남창마을 등 6개 마을 노후 벽돌형 승강장을 철거하고 남원시 표준모델 승강장으로 설치한다.

또한 관내 483개 버스승강장의 지붕 누수, 유리파손,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하여 일제조사하여 스티커,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도 주변청소와 함께 제거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의 봄 축제에 물들다

춘향제 (5월)

철죽제 (4~5월)

요진번 빗꽃 (4월)

여행을 판다를 나와의 만남

지리산둘레길 (3~5월)

요진제전거리 (5월)

순창남원 사랑의 편지

남원시